

## 매스의 분할과 공간간의 상호관입

### The Fragmentation of Masses and The Interpenetration of Spaces

대담자 / 신남수(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설계자 / 류연창((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by Shin Nam-Soo & Lyoo Yun-Chang  
 일 시 / 98. 2. 11(금) 14:00~  
 장 소 / 류가람건축



대담광경(좌: 류연창, 우: 신남수)

신남수 \_\_\_\_\_ 광주에서 건축활동을 하신 지 20년 가까이 되시죠?

류연창 \_\_\_\_\_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선 약 17년 정도 건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남수 \_\_\_\_\_ 이제 류소장님도 '하늘의 뜻을 알 나이' 를 넘어서신 것으로 압니다. 광주에서 만17년 가까이 건축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많으셨을테고 그동안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셨을텐데, 먼저 류소장님의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연창 \_\_\_\_\_ 건축을 시작한 지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건축가 선생님들 밑에서 건축수업을 받은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의 현대건축을 이끌어 오셨던 김종업, 김수근 선생이나 이회태 선생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분들중 한 분을 잠시동안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건축의 초창기에 있었던 기능주의 건축이나 근대건축의 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80년대 초에 우연히 고향인 광주에 모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해주려 왔던 것이 계기가 돼 광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한답시고 하긴 했으나 특별히 제자신의 어떤 건축관을 심으려 했다기보다는 건축인으로서 건축을 대하는 애정과 건축의 기능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건축예술의 흐름을 좀더 나은 쪽으로 가져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인들이 좀더 굳은 의지를 갖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데 보다 큰 의의를 두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신남수 \_\_\_\_\_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지금까지 의료시설이나 학교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축을 다

루어 오셨는데 오늘 좌담의 대상인 「진도향토문화회관」을 설계하게 된 배경과 이 건축물이 갖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갔는지 말씀해 주시죠.

류연창 \_\_\_\_\_ 진도향토문화회관을 설계하게 된 동기는 현상설계에 참여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진도는 호남권 남도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악이나 서예 등 전통문화의 본고장입니다.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런 전통문화의 중심지에 보다 한국적인 문예활동의 중추시설을 건립코자 했습니다. 진도향토문화회관은 650석 가까이 되는 대극장과 연극이나 결혼식, 각종 회의 등 소규모 행사를 벌일 수 있는 250석 규모의 소극장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시동과 관리동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은 진도군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 휴게공간으로서의 작은 '터'라 할 수 있습니다. 진도적인 것을 찾는다고 보다는 한국적인 요소 자체를 어디에다 부여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중점을 두고 계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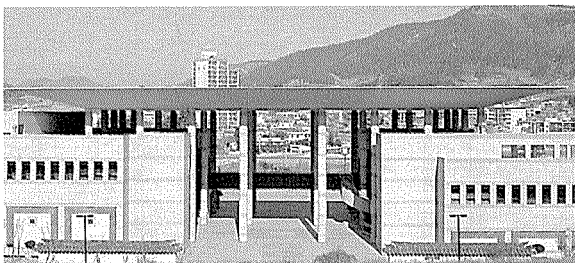
신남수 \_\_\_\_\_ 사실 '문화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형상화하는 과정은 더욱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제 경우는 문화를 정적으로 봤을 때 '삶의 방법의 표현'으로 보고 있으며 동적으로는 '어떤 사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도향토문화회관이 진도라는 지역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삶의 방법의 표현이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건 지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지녀야 진정한 문화회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류소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 특별히 신경쓰셨고 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는데 어떠신지요?

류연창 \_\_\_\_\_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중정은 진도 군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오른쪽엔 대극장 메인홀이, 왼쪽에는 관리동과 전시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예식 등 소규모 행사를 벌일 수 있는 소극장 밑에 선릉을 두어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하층 레스토랑과 더불어 옥외에서 소규모 집회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외부에는 양쪽 건물사이의 중정으로 오르면서 피로티개념이 도입된 격자형 지붕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앞쪽 마당은 모든 진도 군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곳이며 오른쪽엔 민속행사가 가능한 놀이마당을 두었습니다. 대지 전면에는 진도 도심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가 놓여져 있고 대지 후면에는 25m 계획도로가 있어 건물전체의 전면과 후면이 균형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엔 앞마당에다 작은 수공간을 두려 계획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경에 있어선 향후 좋은 수목들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앞쪽에 있는 15m 폭의 작은 개천과 전면도로를 브릿지로 연결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엔 대지전체가 거의 논밭이었던 탓에 전면과 배면의 도로레벨에 맞춰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설계에 임하므로써 지금의 마당형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 건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 부근 일대가 도시계획이 진행돼 가고 있어 그나마 도시계획의 일환이 된 것에 다행스러움을 느낍니다. 도로부터 만들고 후에 택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건축하는 사람과 협의의 통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남수 \_\_\_\_\_ 이 건물은 진도 도심진입 과정에서 눈에 띄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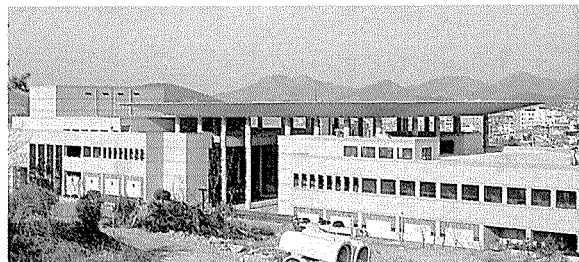
류연창 \_\_\_\_\_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의 형태나 기능보다는 작은 휴게공간, 다시 말해 진도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주어진 대지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군민 모두가 즐기고 쉬면서 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을까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기능적인 면에



선 우측에 대극장을 두고, 좌측에 소극장과 관리·전시장, 식당을 두어 두 개의 큰 매스로 분리시키고 그 중앙에 중정을 두었습니다. 오른쪽 650석 규모의 대극장은 상시 활용되는 공간이 아니기에 사용할 때에만 오픈시키므로써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대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건축물이 전면도로와 배면 계획도로간의 흐름을 차단해선 안되겠다고 보아 매스개념 자체를 가운데에 중정을 둔 상태에서 피로티로 되어 있는 지붕을 씌웠고 양쪽 매스가 정확하게 조율이 되면서 왼쪽에 모뉴먼트타워가 좌우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외부마감재료나 창호재는 현대건축의 조류에 거부감이 없는 재료들을 선택했고, 중정쪽에서 바라보이는 일부 커튼월과 건물 외부 하나하나에서 기둥을 노출시킨 피로티 개념, 모든 군민들이 걸어다니는 공간, 그런 것들을 연출시키는데 주목적을 두었습니다.

신남수 \_\_\_\_\_ 앞에서 류소장께서 '건축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접근방법이 건축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류소장의 건축작품들을 보면 나름대로 류연창류(類)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매스의 분할이라든지, 자연스러운 기능의 배분, 직제된 수평선, 장식없이 세로로 길게 뚫린 창 등이 류연창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래에 와서 몇가지 새로운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솔리드를 중시하면서 보이드된 공간에 대한 배려가 다소 약했다고 보는데 진도향토문화회관의 경우 가운데 강한 인상의 앞마당을 두므로써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또 류소장께서 평소에 주장하셨던 대로 피로티를 과감하게 도입한 점도 이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축언어들, 즉 입구부분의 네 개의 담장이라든가, 장식적 격자창 등은 원숙의 경지에 이른 류연창류(類)의 새로운 시도입니까, 아니면 일시적 외도인가요?

류연창 \_\_\_\_\_ 최근의 여타 제 작품들에서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다 한국적 문양의 격자를 창문앞에 설치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진도



진도향토문화회관

향토문화회관에서 양쪽 측벽에 일부 격자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커튼월로 되어 있는 개념에서 강한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와 더불어 우리의 전통건축을 현대건축에 도입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격자문양을 자연스럽게 두어 조금이라도 한국적 문창살을 통해 안에서 창너머로 내다 볼 수 있도록 한 개념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도입해 보았습니다. 또 건물 내면 요소 요소에 한국적 담장을 두었는데 이는 수직으로 된 열주와 수평으로 된 담장과의 조화를 통해 현대적 건물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찾고자 한 시도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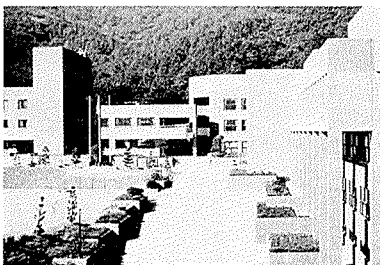
마당쪽에서라든가 건물 부분 부분에서 우리것들을 좀 더 표현해 보고 싶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전부 반영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계획 당시보다 담장높이가 높아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병원이나 학교 등 그동안 해왔던 제 작품들 대부분이 기능이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의 경우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환자와 진찰을 맡는 의사의 동선 흐름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어서 건축물의 기능이 그러한 프로세스에 맞게 되어야 하고 호텔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고객동선과 서비스동선이 기능주의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호텔이나 병원 등은 대지여건에 따라 큰 디피컬티 라운드나, 직선인가의 차이일 뿐 매스가 큰 변화없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매스분류를 우선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실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최근엔 학교건물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의 배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건축에서도 중정이나 피로티 공간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현대건축에 있어 어디까지가 근대건축이고 그 밖의 사조는 또 어디서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상업주의적 건축의 흐름 속에서 일부 작가들이 다른 것들을 찾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깊게 찾아내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남수 \_\_\_\_\_ 류연창류(類)를 하나 더 꼽는다면 형태전체를 오브제로 보아 매스를 중요시하면서도 눈높이에서 아기자기한 변화를 중시하는 이원성을 들 수 있을텐데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보여집니다. 특히 이 작품에선 눈높

이에서의 아기자기한 느낌 뿐만 아니라 전체 전면 매스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솔리드의 중후함이 엮여있습니다. 안마당에서 양쪽건물을 본 느낌은 여성적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선 과다자인 된 부분도 없지 않는데 이를 이 작품의 특성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류소장님의 외유내강의 표출이라 봐야 할까요?

류연창 \_\_\_\_\_ 건축에는 확실하게 정해진 해답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작품들중에는 가끔 건물내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건물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선 양쪽에 두 개의 큰 매스를 두고 가운데 중정과 앞마당과의 연결고리로서 앞쪽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자체를 아무 장식없이 가기보다는 양쪽으로 대칭되어 있는 느낌 속에서 그것들이 분산돼 가는 아기자기한 꽃대들의 흐름과 또 그 앞에서도 일부 보여져 있는 피로티의 개념 자체를 같이 연출시켜서 조금은 위의 햇살에서 비취오는 흐름을 차단하고 가리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만족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하나의 광장이기에 조금은 과장되게 아기자기함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신남수 \_\_\_\_\_ 이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본 것입니다만, 류소장님의 기존의 다른 작품보다는 좀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고 싶은 것이 전체형태는 기능적인면을 따라가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작품의 내용속에는 안마당을 중시하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관입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간간 상호관입의 절묘한 수법은 남도인의 정서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류소장께서 지금껏 보여주었던 기능주의적 사고가 이제는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전이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인 동신대학교 문화회관에서도 표출됐듯이 전에 없이 내·외 공간의 상호관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셨는데 이 점이 앞으로의 류소장님의 작품활동에 어떤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도서관(동명동)

류연창 \_\_\_\_\_ 금방 말씀하신 동신대문화회관을 비롯해 최근에 문화시설을 몇 작품 하게됐지만 실은 학교 졸업 후 이희태선생님을 모시고 일할 당시 장충동 국립극장 소극장 무대의 음향과 실링 등을 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문화공간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좋겠더라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의 문화회관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문화공간이란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변화를 추구해 보았던 것으로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다른 시각에서 디자인 요소를 찾아내 보겠다는 생각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변환점을 찾아보겠다고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알게 모르게 광주에서 17년간 활동하면서 점차 토착화된 저희 사무소가 광주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의 표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더 한국적이고 광주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얼마만큼 만족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제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남수 \_\_\_\_\_ 근대주의 건축에서 탈피하겠다는 류소장님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본질적으로 근대건축의 실패를 광주건축으로 대처하겠다는 선언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 건물을 보면서 너무 강렬한 기념비적 성격, 다시 말해 랜드마크적 성격 등에 대해 조금은 거부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제 군단위 도시에서 650석 규모의 대극장을 일년에 백회이상 사용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이것이 진도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 건물의 현상설계 당시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때 이 건물이 기능적인면에서 명쾌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던데 반해 프로그램 자체가 관리 면에서 잘 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보면서 참 잘 풀어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장 얘기가 나와서 얘깁니다만 또 군단위의 문화회관으로선 다소 고급스런 무대장치에 비해 실내를 아주 간명하게 처리한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그런데 실내 방음판을 모두 회색으로 처리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

유리도 있었나요?

류연창 \_\_\_\_\_ 사실 극장홀은 공연직전까지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내부의 벽체디자인에 목재격자를 도입하였습니다. 코펜하겐 리브를 사용하여 나무의 결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채광의 흔들림이 없는 정적인 색으로 회색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코발트나 노랑, 적색계통의 다른 색을 썼다면 들뜬 분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고 조명 역시 햇빛과 달리 실내조명과 잘못 조화되면 관객들을 들뜨게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을 주고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기 위해 회색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신 천정은 조명을 끄고 난 다음에도 반사가 되지 않도록 베이지색 계열을 사용했고 윗부분 음향반사판 일부도 베이지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벽면 디자인 요소 몇가지에는 다른 색깔을 주어서 균형을 맞추고자 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메인로비 같은 곳은 예산문제 때문에 밝은 색의 무늬코트 뿔기 페인트워크로 처리하였고 바닥도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인조석 물갈기로 했습니다. 외부도 처음엔 석재로 계획했다가 결국엔 페인트 뿔기 마감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료에서 오는 질감을 얻기가 어려웠고 전체적으로 매스공간과 그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조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단위의 도시에서 이만한 문화공간을 건립할 수 있었던 데는 클라이언트측의 열의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설계자인 저 역시 여건에 맞춰 최선을 다한 결과라 하겠지요.

신남수 \_\_\_\_\_ 말씀을 듣고보니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해 축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끝내시면서 아쉬움도 많으셨을테고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셨을 줄 압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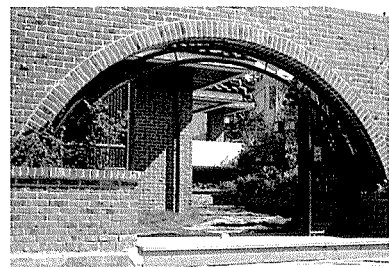
류연창 \_\_\_\_\_ 제일 아쉬웠던 것은 예산이



광주광역시 교육청 도서관



K씨 주택



K씨 주택

적든, 많은 처음 현상설계에 임할 당시의 면적개념을 살리면서 다른 조형성과 기능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텐데 쓰고자 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면적은 1/4정도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계획했던 농수산물특관장 같은 시설들은 차후에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쪽 두 개의 매스를 연결시키고자 계획했던 지하층의 회랑과 피로티가 빠지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또 주민전체가 바라던 문화공간이 설계부터 시공이 끝날때까지 온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하에 무사히 진행됐던 것이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신남수 \_\_\_\_\_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창작활동으로 오늘에 이르셨는데 오늘의 현안과 앞으로 건축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남다른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건축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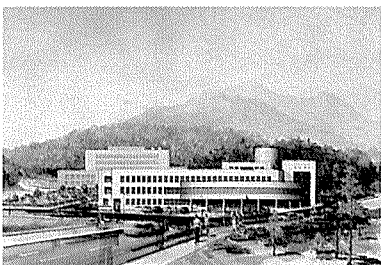
류연창 \_\_\_\_\_ 건축행위 자체는 건축과를 졸업하고 금방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므로써 사회적, 경제적, 예술적, 기능적 요소들을 종합 예술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빨리 성장해 모든 좋은 것을 빠른 시간내에 만들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자기 할 일을 다하는 것 자체가 건축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진정한 건축인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건축계 전망을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다만 우리의 건축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성장한 건축이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여 주기 위한 건축, 무엇인가 만들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 드는 건축으로 커온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현대건축을 이끌어 오신 여러 선배건축가들로부터 배워왔던 부분들이 오늘의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건축은 멀리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설계에 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래 외국건축가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국의 건축은 한국건축가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며 건축적

인 계획이나 기획 정도는 우리 건축가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의 엔지니어링 분야나 건설계약시에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계속 스테디해 나간다면 한국건축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이는 제 생각이라기 보다는 건축계 선배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한국건축엔 발전적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남수 \_\_\_\_\_ 일반적으로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종합예술이란 말의 뜻을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 건축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 이는 1세대와 3세대를 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루이스 칸이 했던 말로 기억됩니다. 이제 건축활동기간이 30년을 바라보는 중견이 되셨으니 류소장님의 건축이 더욱 원숙해 지실 것으로 보는데 향후 건축에 있어 류소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류연창 \_\_\_\_\_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해온 설계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이외에 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국제적 건축사조의 흐름을 더 공부해서 이를 원동력으로 보다 한국적인 요소들을 디자인에 도입하고 싶고 늘 배우는 자세로 작품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신남수 \_\_\_\_\_ 류소장님의 말씀은 건축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혼이 담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류소장님이 우리 남도 사람들의 혼이 담긴 훌륭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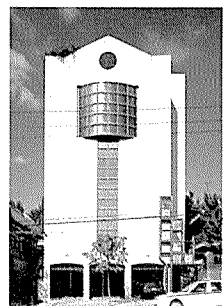
동신대학교 전산센터



윤씨 근린생활 시설



호남신학대학교 본관동



류기람건축 사옥